

“빛그린산단 부지 보상 하반기 착수”

LH 이지송 사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계획대로 2014년 완공”

LH공사 부실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빛그린산단 부지 보상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 의원은 8일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이낙연·김동철 의원 등과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빛그린산단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에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의원은 “지역주민이 어려운 만큼 LH공사가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최대한 해달라”고 주문했고 김동철 의원은 “형평성 측면에서 대구사이언스파크에 뒤처지지 않게 빛그린산단 보상이 이루어

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용섭 의원은 “빛그린산단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하나로서 광주와 전남의 지역현안사업인 만큼 국토해양부 및 LH공사가 조속히 보상을 실시해서 애초 계획대로 2014년에 완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빛그린산단 보상을 올해 하반기 중에 착수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4년 완공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빛그린산단은 공장용지수요가 충분하고 조성원가가 낮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사장은 또 빛그린산단과 함께 지난 2009년 9월30일 고시된 대구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부지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접해 있는 낙동강 준설토를 저지대인 대구사이언스파크에 무상반입하면 공사원가를 약 600억원 절감할 수 있어 준설토 반입에 필요한 사이언스파크 일부 부지(3638천㎡)만을 우선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도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12억5000만원을 내내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와 합평군 일원 4.08km에 조성계획인 빛그린산단

지는 606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광산읍과 디지털 정보가전, 자동차산업, 첨단부품소재, 생물·의약 등 최첨단 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007년 말 국토해양부에 산단 조성을 건의해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졌고, 전남도는 애초 같은 해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LH공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보상을 미뤘었다.

이에 따라 광산구와 합평군 월야면을 합해 모두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주택 증축과 토지거래 등 재산권이 묶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700억 채무 전남개발공사 ‘감채적립금 의무화’ 부담 전남도, 공기업 부채상환정책 난감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을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입법되고되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남개발공사가 감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

감채적립금은 빚을 줄이기 위해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순이익에서 빼내 따로 모아두는 돈이지만 F1경주장 인수를 위해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앞둔 전남도와 개발공사로서는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을 의무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

정이 확정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매년 이익금 배당 전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적립금으로 우선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지방공기업이 이익금을 빚 상환에 쓰지 않고 배당금을 나눠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이익금 발생의 여지가 희박해 감채적립금 적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전남개발공사의 손수채무는 지난해 말 결산기준 4729억원(부채비율 109.1%)으로 재정건정성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지난해 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공사 설립 이후 6년여동안 적립된 이익금이 고작 3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익금이 적어 배당금 지급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결산에 대비해 쌓아놓은 돈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의 부채규모 적정유지와 채무전선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발행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F1경주장 인수를 위해 1980억원 상당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채적립금을 위해 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관리 부담을 지시한 것으로 했다”며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규모가 양호해 공사채 발행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면무상급식 NO 단계적 무상급식 + 방과후 무료학습 YES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하자

투표를 33.3% 이하면 주민투표 무산되고 급식비 안 냅니다.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거리에 한나라당(위)과 민주당의 주장을 담은 찬·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창이·인천·스피홀 노숙하기 좋은 공항 외교부 블로그 소개 눈길

휴가철을 맞아 외교교통상부 블로그에 노숙하기 좋은 공항과 일부 공항의 이색 서비스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 정책블로그 ‘외교나래’ (blog.naver.com/ilove-mofat)는 8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 ‘슬리핑인어포트(www.sleepinginairports.net)’ 등을 인용해 전 세계 공항 중 노숙하기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각각 10곳씩 소개했다.

탑승을 위해 잠시간 대기할 때 소파 등에서 하루 밤 묵기 좋은 공항으로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1위로 꼽혔다. 창이공항에서는 샤워시설과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 내 상점·식당이 300여 개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인천국제공항도 창이공항에 이어 노숙하기 좋은 공항으로 꼽혔다. 이밖에 암스테르담 슐홀공항,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 홍콩 첵람공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연합뉴스

美·英 ‘동해를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 제출 파문

정부 ‘동해·일본해 병기해야’ 강력 반발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리기구(IHO)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IHO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국제수리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내 수리기구

U대회 수완수영장 추진위, 1인 시위 잠정 중단

광주 광산구 수완수영장 건립 원안 추진위원회(이하 수원추)는 지난 6월부터 ‘U대회 수완수영장 건립’을 주장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실시해온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원추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대회 수영장 부지 재선정을 위한 용역과 검증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강문태 광주시장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며 “U대회 수영장이 수완과 첨단 지역에 건립될 것으로 확실하고 지난 50여일 동안 진행된 1인 시위를

“국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연임 성공 반기문 유엔총장 오늘 방한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일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지 9개월 만이다. 2007년 사무총장 취임 이후 4번째 방한이다. 그러나 이번 방한은 예년과는 다른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사무총장 연임이 확정된 이후 첫 국민 방한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연임을 기원해준 우리 국민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앞으로 5년간 유엔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설명·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외교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반 총장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한다는 뜻을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싼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